

1 개요

광청아기본풀이는 구좌읍 김녕리 송씨 집안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집안수호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로, '송동지영감본풀이'라고도 한다.

김녕리 송동지가 진상 차 서울 갔다가 광청아기와 사랑을 나눈 뒤에 홀로 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몰래 뒤따르다가 죽자 그 영혼이 송동지의 막내딸에게 빙의하여 자신을 조상신으로 모시게 하였다.

2 내용

동김녕 송동지 영감은 목사의 명으로 서울로 진상을 갔다. 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광청 고을 허정승 집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돌아다니다가 불빛이 비치는 방을 발견하였다. 그곳은 광청아기의 방이었다. 광청아기는 송동지와 눈이 마주치자 안으로 청하였다. 둘은 함께 술을 마시고 옷을 바꾸어입는 새색시놀이(각시놀음)를 하고 합방하였다.

송동지는 영암 덕진다리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돌아왔다. 이듬 해 송동지는 진상을 마치고 다시 허정승 댁으로 가서 머물렀다. 광청아기는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 송동지는 제주도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아기씨를 뿌리치고 나왔다. 송동지가 영암의 배진고달포에서 배를 띄우려고 할 때 아기씨가 배에 오르려고 하였다. 이물사공이 발판을 당기는 바람에 아기씨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송동지가 동김녕 포구로 배를 대자 막내딸이 흐트러진 자세로 바닷물에 뛰어 들려고 하였다. 광청아기 혼령이 막내딸에 빙의한 것이었다. 송동지는 심방을 불러다가 굿을 하였다. 송동지는 부자가 되고 셋째 아들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광청아기는 동김녕 송씨 집안에서 고팡(庫房)에 모시면서, 명절, 제사, 철갈이에 위하였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를 대표하는 전승이다. 조상신본풀이에는 제주 남성이 육지에서 여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여성을 버리고 돌아올 때 여성의 영혼이 따라와 남성의 딸에게 빙의하여 조상신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광청아기본풀이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 여성의 영혼이 옷감을 따라온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

④ 핵심어

동김녕, 송동지, 진상, 광청고을, 허정승, 새색시놀이(각시놀이), 영암, 덕진다리, 배진고, 달또, 빙의, 명절, 제사, 철갈이, 송동지영감본풀이

⑤ 원전 서지사항

광청아기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